

## 김관영 지사, 김민석 총리 면담 ‘전북 소외’ 우려...지원 촉구



김관영 도지사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북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자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국무총리실>

김지사, 3대 현안 전폭적 지원 건의  
완·전 통합 인센티브 조기 발표 촉구  
3특 균등지원 제도화...지위 보장 요청  
전북특별법 개정 조속 처리 강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뒤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자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급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5급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투자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를 설득 중인 만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5급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에도, 현재 구조가 5급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미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사실상 조 광역권(5급) 위주로 제시되면서 전북·강

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 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 밀착형 특례가 담겨 있어, 지역민이 체감할 성과를 위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조 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한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되고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문화 출연·유관기관 월례 '소통의 날' 가동

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 등 7개 기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자율·토론회·협업체·현안공유 강화

전북도가 문화 출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례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4일 전북문화관광재단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열고 '2026년 문화 출연·유관기관 소통의 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소통의 날은 도와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번 소통 창구는 지난 1월 28일 도

의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화기간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협력 구조 강화 필요성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를 지양하고, 자율적·개방형 토론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기관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전북도립미술관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전북문화관 등 총 7개 기관이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과장, 관련 팀장이 참석하고, 각 기관에서는 대표 및 사무국장(본부장) 등 책임자가 참여해 현안을 직접 논의한다.  
연간 운영은 기관별 순환 주관 방식

으로 이뤄진다.  
2월·8월은 전북문화관광재단, 3월·9월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4월·10월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5월·11월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6월·12월은 전북도립미술관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7월은 전북문화관이 주관한다.  
도는 이번 소통 플랫폼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축제·공연·콘텐츠·전시 분야의 연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형식보다 내용, 경쟁보다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전북 문화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 의원들 "5급보다 강한 특례·10조 투자 필요"

민주 전북의원단·김관영 도지사  
국회 소통관서 합동 기자회견  
"자금이 전북발전의 골든타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지사는 4일 "3특(전북·제주·강원)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 원 규모를 투자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정동영·안호영·이성운·박희승 의원과 김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정적 골든타임에 전북이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북은 '5급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5급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중인 5급(광역 통합특별시) 관련 법안과의 구조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5급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투자와 특례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전북 생존의

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 정동영 안호영 이성운 박희승 의원과 김관영지사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특에 10조원 규모 투자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전북의원단>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도한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5급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에 ① 3특(세종·제주·전

북)에 최소 10조 원 규모 국가 투자 보장 ② 전북에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③ 농생명 산업 전 분야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5급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에 ① 3특(세종·제주·전북)에 최소 10조 원 규모 국가 투자 보장 ② 전북에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③ 농생명 산업 전 분야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5급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도당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의 실질적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급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

# 설명절 최고의 선물

소중한 고객을 위한 진안의 선택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진안고원에서 정성어린 손길로 마이산의 정기를 흠뻑 받아 만든 건강한 진안의 농·특산물을 선물하세요.

###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에서 설명절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p><b>진안사과 선물세트</b> 5kg 선물세트·W시중가</p>	<p><b>전북인삼농협</b> 6년근 홍삼농축액, 6년근 홍삼베리국 젤리식약 W39,000원 ~ 120,000원</p>	<p><b>진안홍삼 다린액 선물세트</b> 진안홍삼 인증업체 다린액 선물세트 업체별 가격은 진안고원몰에서 확인</p>
<p><b>진안고원 한과 선물세트</b> 참쌍유과, 풍유과, 한과바구니세트 W20,000원 ~ 64,000원</p>	<p><b>전북인삼농협</b> 홍삼에침향, 홍양경, 홍단체 W12,000원 ~ 35,000원</p>	<p><b>수리간</b> 도리지정과, 인후단, 더덕정과 W55,000원 ~ 85,000원</p>

QR코드 스캔하여 진안고원몰로 연결됩니다.

구입문의: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을 할인행사 2.6 ~ 2.10.(5일간) 진행됩니다.

더 많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진안고원몰을 검색하세요.

# 전북도,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위에 공식 요청

금융위 면담·지정 심사 착수 촉구  
대통령 공약 3차례 반영 당위성 강조  
국민연금공단 추자산운용 내세워  
KB·신한금융 투자·인력 계획 힘써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를 필두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회를 방문해 지역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여의도동 일대)과 부산(문현동 일원) 두 곳뿐으로,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이 지정될 경우 제3의 금융중심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함께한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29일 도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보인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세 차례나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민간 금융그룹의 전북 투자 움직임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며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 자산운용 활성화와 연기금 역할 강화를 강조한 만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 전문가·금융기관 간담회,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이 요구하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지역원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전북도>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완료했다"며 "이제는 금융위원회의 결단만이 남은 시점"이라고 적극적인 심사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도의 추진 배경과 개발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뒤, 향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긴

밀히 협의하며 정지권, 금융권, 도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도의회는 지정 신청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도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지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문화기관 도는 4일 전북문화관광재단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열고 '2026년 문화 출연기관간 소통의 날' 정례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1면) <사진=전북도>

## 순창·장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 89% '순항'

1월말 기준 순창 87% 장수 91%  
2월말부터 1인 15만원 첫 지급

전북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장수 군민 10명 중 9명이 신청을 마쳐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30일 기준 군민의 87%인 2만 4,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장수군 역시 1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91%인 1만 9,000여 명이 신청했다. 두 지역을 합친 평균 신청률은 89%에 달한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도와 두 군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 대응 강화가 있었다.

읍·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접수 인력 추가 배치로 초기 혼선을 줄였고,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신청자는 2월 2일부터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두 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군·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사용을 촉진해 소득이 지역경제로 다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 서비스 공동체 발굴, 창업 유도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민선시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며,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소득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자치도, 동물헬스케어산업 발전 협의체 킷오프 회의

전북대산학연관 20여명 참여  
기업 생태계·인력 양성 전략 논의  
특별법 연계 국가실증거점특례 도식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산업 발전 협의체'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차세대 동물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직

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대학·연구기관·기업 관계자 등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북 동물헬스케어산업의 현황과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기업 생태계 확장, 전문 인력 양성,

연관 산업 고도화 등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특별법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연계 전북이 보유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인프라를 국가 차원의 실증 거점(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 발굴과, 실증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바이오) 선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과, 동물헬스케어산업 박람회·포럼·세미나 개최 등 홍보 및 교류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선시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신규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바이오) 선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과, 동물헬스케어산업 박람회·포럼·세미나 개최 등 홍보 및 교류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선시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신규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바이오) 선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과, 동물헬스케어산업 박람회·포럼·세미나 개최 등 홍보 및 교류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선시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신규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이원택 '1천원 주택·1천만원 예식비' 파격 청년정책 발표

'살맛나는 전북' 청년정책 1탄 발표  
1천원 청년주택 500호 공급  
예식비 지원·명소 공공웨딩홀 조성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4일 월 1천 원 청년주택과 1천만 원 예식비 지원을 골자로 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결혼·복지 등 청년 삶의 기본 축을 묶은 패키지 정책 '전북 청년, 여기 살맛 난다'를 공개했다. 현장 목소리를 담은 첫 번째 청년 정책으로, '살고 싶은 전북'이란 인식을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원택 의원

국가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은 약 8만 7천 명에 달한다. 이는 인구 감소 가속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보다 과감하고 특화된 청년 정책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1천 원 청년주택 500호 공급 △1천만원 예식비 지원 △청년 근속 복지카드 도입 등의 청년 정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1천원 청년주택 500호 공

급에 대해선 "민선 9기 동안 공공아파트 신규 조성 및 기존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병행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청년 삶의 출발선인 주거 문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1천만 원 예식비용 지원'에 대해선 "전주 한옥마을과 부안 줄포생태공원 등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명소를 최신 트렌드에 맞는 공공 시그니처 웨딩홀로 조성·리모델링해 대관료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며 "이용 저조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공예식장 연계 부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이용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 근속 복지카드 도입'에 대해선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 60만 원, 1~4년 차 재직자에게 연 30만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직접 지원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혜 인원이 제한된 정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달리,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 지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년 정책은 전북 미래 조건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전북 청년이 지역에서 살맛 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특목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추진

도비 1억5000만원 투입 2년 위탁  
문화태권도 등 목적형 관광단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특수목적관광(SIT)은 전통문화 체험, 태권도 수련, 한복·한식 체험,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 특정 관심과 목적을 가진 관광객이 방문하는 형태의 관광

으로, 일반 관광보다 체류기간과 소비 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 관광 분야로 평가된다.

위탁사무는 SIT 브랜드상품 기획·홍보, 목적형 관광단 유치, 국제관광 교류 행사 및 기업 인센티브 단체 유치, 국제 행사 연계 관광마케팅 등이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2026년 도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공모는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고, 제안서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도 관광산업과에 방문 접수한다.

도는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2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C**

- 난방온도: 20°C
- 온맵시 실천하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사용하기
- 안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 전주시 '피지컬AI-밸리' 조성 미래도시 선점 '첫발'

## 우시장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 행정체계 마련

전주시가 국가전략사업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역 전북 지정과 맞물려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피지컬 AI-밸리'(이하 J밸리)를 조성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조 기반의 피지컬 AI 연구·실증·기업·인재 유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밸리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주를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탈바꿈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연구·실증 인프라와 거점 시설이 집적화된 J밸리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진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갖춘 J밸리는 약 100만㎡(30만 평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피지컬 AI 관련 기업 집적화와 지역 산업 기반의 AI 융복합 확산을 이끌게 된다.

동시에 시는 연구개발특구와 기회발전



전주시가 국가전략사업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역 전북 지정과 맞물려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피지컬 AI-밸리'(이하 J밸리)를 조성한다

특구 등 관련 특구 지정과 연계해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AI 관련

국가연구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또 시는 피지컬 AI-J밸리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과 지역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여기에 시는 피지컬 AI를 농생명·바이오·탄소 등 전북·전주의 특화 산업과 연계하고, 전주만의 강점인 K-콘텐츠(영화·영상·전통문화)와 접목하는 등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AI 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민·관 합동 '피지컬AI 밸리 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산업 비전 수립과 후속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피지컬 AI 산업이 현장에서 구현돼 산업 생태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시는 조속히 조직 내 기획부터 핵심 인프라 구축까지 전담하는 '피지컬 AI-J밸리 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 시는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SK 등 엔지니어링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해 공동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중소기업협 정치권완주전주통합찬성

통합표명 전북중소기업계 경의

장 동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김병진 회장)은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완주 전주 통합' 찬성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전북 미래 위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했다.

그간 완주와 전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을 감내해 왔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 일관된 전략 수립을 가도막았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광역 경제권 중심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 광역 지자체들은 통합 선언을 통해 수도 원 규모 정부 지원과 성

이러한 시정의 '완주 전주 통합' 선언은 전북 중소기업이 국가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완주 전주 통합'은 전북 30만 중소기업인과 60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더 이상 행정과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전북 중소기업계도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통합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완주 전주 통합'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설 명절' 청소 관리 종합대책 추진

## 청소상황실·기동처리반 운영

전주시가 설 연휴 기간 설 명절 청소 관리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동안 '2026년 설 명절맞이 청소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청소 관리대책은 설 연휴 전·중·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명절 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과 관광지 등 정결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설맞이 취약지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투기지역과 장기 방치 쓰레기 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각 동별로 도로변과 관광지, 도심 공원 등을 일제 점검하고, 소량 쓰레기는 환경 관리원이 자체 처리하되 다량 쓰레기는 기동반과 장비 투입해 신속히 정비하게 된다.

또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일요일인 15일과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날에 생활쓰레기 수거를 실시해 수거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시 직영 환경관리원은 오는

14일과 16일, 18일에 근무하게 되며, 청소 대행업체도 오는 14일과 16일 정상 근무를 통해 연휴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후 시는 설 연휴 종료 후인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적치 쓰레기 일제 정비를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한 혼란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다중 집합 장소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적치현황을 파악해 성상별 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연휴 이후까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정소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남 창녕 돼지농장 발생

중수본에 따르면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 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중이다.

해당 농장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

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 등 집중 소독한다.

특히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 돼지농장·도축장·사료 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의회 아동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점검

운영 준비 점검·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윤철)는 4일 전주시 인후동 아동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준비 사항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을 앞둔 아동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운영 계획 및 인력 구성, 어르신 이용 프로그램, 공간 활용 실態 등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이중누리돌봄센터 건물 1~2층과 5층에 위치한 아동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과 체력단련실, 강당,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윤철 위원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복지 시설"이라며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경찰서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편취 피의자 검거

총 4억9000만원 보증금 편취

전주완산경찰서는 무자본 겹투자로 다세대 빌라를 인수하여 속칭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4억9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남성, 50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은 과다 채무 누적으로 전세보증금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세계약 내지 전세 갺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경 최초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자금 흐름 분석 등 5개월 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범행을 입증하고 구속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다기구 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개원 117주년 기념식

양철철 병원장 "새로운 도약 준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철철)이 개원 11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역 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걸음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고난도 수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적용 분야는 △로봇 자궁절제술 △근경색술 △난소낭종절제술 △자궁내막증 및 유착 박리 수술 △부인종양 수술 등이다.

/정혜민 기자

10년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221명), 협력업체 우수직원(1명) 및 모범 자원봉사자(1명) 등의 시상이 거행됐다.

또한 우수전공의에 대해 최우수 논문상(피부과 강태중)과 우수 논문상(영상의학과 조형륜·치과보철과 지민주·피부과 이근중·재활의학과 왕어진·정형외과 호지웅)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병원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병원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표창, 정년 퇴임 인사, 병원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 '전주가정법원 신설' 가시화 '환영'

## 4일 전주가정법원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종 통과 적극 대응

전주 가정법원 신설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주시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률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를 63만 전주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입장문 발표에서 우시장은 "오랫동



안 지역의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63만 전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로써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사실상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전주가정법원의 실현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전북도민들의 가사·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우 시장은 "이번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대외 발의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

## 참여 업체 공개 모집

전주시가 자율적인 환경 관리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전주지역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은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됐

다. 법 시행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사물인터넷(IoT)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지시설 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주기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총 91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 시설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배출 수거 수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정소민 기자

## 예수병원 로봇수술기 4세대 '다빈치 SP' 도입

예수병원은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SP(Da Vinci SP)'를 도입 정밀 의료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다빈치 SP'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더욱 정밀하고 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단일공 접근(Single Port) 방식을

채택해 보다 작은 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일 절개를 통해 로봇팔이 진입하므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 환자에게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감염 위험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

또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수술 후 통

증이 감소하고 입원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혁신적이다. 하나의 로봇팔에 장착된 수술 기구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360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의 손보다 더 미세하고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수술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위에서도 정확한 수술이 이뤄진

/정혜민 기자

# “지역사회와 함께 국민연금 성장할 것”

## 김성주 이사장, 지속 성장 강조...분명한 방향·개혁 밝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연금 운영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와와의 지역상생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개혁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위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등 구조개혁 길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투자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우수한 경력직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대졸 미경력자를 주임운용역으로 채용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해 취약계층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 상생협력에 대한 공단의 의지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전 주사무소 16개소 유치,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정읍 인제개발원 착공, 마을지치 연금사업 등 공단이 지역과 협



력한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 취임 후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상주인력이 배치되는 등 기존에 입주한 사무소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른

금융사들의 추가적인 결단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공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총력

### 상시 방역체계 구축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순적축협(조합장 남상국) 경제사업장을 방문해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상황 및 생석회·소독약·방역복 등 비축기지 방역물품이 보관요령에 따라 보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 증가로 인한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 현장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비축기지 운영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전북 관내 축협 관계자 및 공동방제단 근무자를 격려하며 방역 차단 및 예방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월부터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지자체, 축협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46대를 활용하는 등 농협 소속자

원을 총동원해 진출입로 및 위험지역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긴급상황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비축기지 6개소(정읍, 고창, 부안, 완주, 임실, 남원)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관내 축협 조합원 및 농가 대상으로 약 4000만원 상당의 생석회(600포), 방역복(30박스), 면역강화제(2822개)를 지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설 연휴 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틈없는 방역이 중요하다”며 “축산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등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도해주시고 범농협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조달청, 공공조달 길잡이 발표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3일 안주군청에서 열리는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공공조달제도 안내와 함께 공공조달길잡이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전북지방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제도의 기본 구조와 기업 성장 단계별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업체 등록 절차 △물품목록번호 제도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나라’ △혁신제품 제도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 조달물품 지정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G-PASS 제도 등 공공조달

전 주기 제도를 기업 눈높이에 맞췄다.

특히 설명회 이후에는 공공조달길잡이 제도를 활용한 1:1 맞춤 상담을 통해 기업별 조달 준비 수준에 따라 등록, 입찰, 계약, 판로 확대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실질적인 조달 참여를 돕는 현장 중심 지원 제도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이미 전주, 무주, 군, 부안군에서 설명회와 상담을 실시했다.

앞으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공공조달 제도 안내와 현장 상담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양파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농할지원·자조금 연계 홍보·기회 할인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양파 도매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26년산 양파 산지 포진거래 부진 등에 따라 도매가격 회복과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장양파는 햇양파 수확 전인 1~3월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5년산 저장양파는 재고량(정부비축물량 미포함 시 전년비 1.5%↑, 포함 시 8.7%↑, '25.12월말 기

준이 증가했고, 수요 감소 및 품위가 좋지 않은 물량이 출하되는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1월 도매가격이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3월에도 현재의 도매가격이 유지될 경우 산지 포진거래, 햇양파 수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계적인 수급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28일 및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유통법인, 도매법인, 생산자단체, 자조금 등 양파 수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수급점검 회의에서는 정부 수매비축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 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촉진,

도매시장 상장 양파의 선별·품질 강화 및 3월 조생종 양파 출하 전까지 수입산 양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수매비축한 양파 25천톤 중 15천톤을 시장격리 차원에서 베트남, 대만, 일본, 말린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잔여물량 9.6천톤은 3월 하순 햇양파 출하 이후 가격 급등과 같이 급격한 수급 불안이 일어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지원(최대 40%, 2.5~2.16)을 실시하고, 3월에는 농협경제지주와 자

조금을 연계해 국산 양파 홍보 및 할인 지원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상장 양파에 대한 품질 선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상품성 낮은 양파의 무분별한 출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 생산자단체 간 유통협약을 통해 도매시장 내 가격 하락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3월 조생종 양파 출하전까지 소관 관계부처(관세청, 식약처)와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및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진원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

### 공정개선·시험분석 품질인증 획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윤여봉)은 도내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운영한다.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소기업 제품 신뢰성 확보와 ESG 경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사업과 제품의 품질·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구성됐

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이고, 전북에 공장을 소재한 제조기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공정개선 지원사업은 기업단독형(Track1)과 산·학·연 협력형(Track2) 분야로 나뉘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분야가 추가돼 혁신 기반, ESG, 스마트 제조의 총 세 가지 유형의 세분화된 공정개선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 개선

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설비 자동화와 효율화로 불량률 감소 및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ESG 공정개선, IoT·AI 기반 디지털 데이터 활용으로 생산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

시험분석 지원은 제품의 성능, 품질 또는 성분 분석 등을 지원하고, 품질인증획득 지원은 KS, KC, 녹색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A형과 신제품(NEP), 신기술(NET), GS(S/W), 조달우수제품인증 등 B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업체에서 필

요한 분석이나 인증을 미리 진행한 이후에 신청해 지원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공정개선 지원사업은 연초에 참여기업을 모집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2월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 중이다.

또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1~3분기 분기별로 모집이 진행돼 1분기는 3월에 진행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자세한 사업 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봄감자 그늘막 싹틔우기’ 방법 안내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봄감자 재배 위한 씨감자 그늘막 싹틔우기 방법을 4일 안내했다.

봄감자는 고랭지 일부지역 제외와 전제 감자 재배면적의 65%를 차지하며 전국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파종 시기는 3월 상순부터 하순사이며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 이전에 수확한다.

농가는 공급받은 씨감자가 상했거나 흑색심부 증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골라내야 한다.

특히 씨감자는 싹을 미리 튀워 파종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싹이 땅 위로 나오는(출현) 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생육기간과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생육 초기 검은무늬썩음병(흑지병)을 비롯한 토양병해충 피해 예방에

도 도움이 된다.

그늘 싹틔우기는 씨감자 심기 20~30일 전부터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마련한다.

더불어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30~50% 차광막을 설치해 두꺼운 부직포나 스티로폼을 칸 바닥에 씨감자를 얹게 펼쳐 놓는다.

바람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2~3단으로 엮갈려 쌓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2~3일마다 상자 위치를 바꿔 빛이 고르게 닿게 한다.

적정 온도는 15~20도(°C)로 낮에는 환기를 충분히 하고 밤에는 보온덮개로 덮어 냉해·동해를 예방한다.

하루 1~2회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 80~9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파종에 알맞은 싹 길이는 1~2cm 이내



이다. 씨감자를 절단해 파종할 때는 눈(눈아, 싹)이 많은 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르고, 감자 크기에 따라 한 조각에 높이 2개 이상 포함되도록 2~4등분으로 자른다. 한 조

각당 무게는 30~50g이 적당하다.

절단용 칼은 무름병과 풋마름병 등 병전염을 막기 위해 칼은 물에 30초 이상 담가 소독한 뒤 찬물에 담가 충분히 식혀 사용하는게 좋다.

/김영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기부 ‘백년소상공인’ 300곳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의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에 뿌리내려 온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생활·제조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326개사(백년가게 1,407개사, 백년소공인 919개사)를 지정했으며, 이들 업체에 인증현판 제공, 브랜드

홍보, 시설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규지정 규모를 '25년 100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백년가게 150개사, 백년소공인 150개사 내외)해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제조업 등 생산기반 소공인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된 소공인(제조업)으로, 경영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에는 지정서와 함께 인증현판, 성장이력이 담긴 스토리보드가 제공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함께 강화소상공인 성장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공인특화지원사업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10개 내외) 신청시 가점 적용 및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부여 된다.

/정소민 기자

#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안내

## 23~26일까지 원서 접수 교무·조리실무사 등 7개 직종 2백여명 선발

전북교육청 2026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험 일정이 안내됐다. 4일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위한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 등을 누리집을 통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누리집에는 2026년도 교육공무직원 채용 직종 및 시험 일정 그리고 기타 등을 담겨져 있다. 전북교육청 2026 채용 예정에는 7개 직종 ▷교무실무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늘봄실무사 ▷교육복지조정자 ▷교육복지사 ▷인상심리사

등 총 200여명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19년부터 공정성 강화 위한 도교육청 주관채용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26일까지 4일간이다. 1차 필기시험은 내달 28일이며 면접 시험은 오는 5월 2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15일 발표된다.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 중 사전예고는 4일 오전 10시를 기준해 공개했으며 채용시험 시행공고는 오는 11일 개시될 예정이다. 단, 공지 채용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 확정되는 '2026년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



4일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자 위한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일정 등을 누리집을 통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2026 설맞이 작은문화축전'이 개최된다. '작은문화축전'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 마련된다.

## 국립전주박물관 '설맞이 작은문화축전'

### 14~18일까지 체험행사 이벤트 진행

국립전주박물관 '2026 설맞이 작은문화축전'이 개최된다. '작은문화축전'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 마련된다. 특히 올해 30회째를 맞은 국립전주박물관 '작은문화축전'은 그동안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행사·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큰 호응과 인기를 받고 있다. 이번 '2026 설맞이 작은문화축전' 행사는 △상설체험마당 △명절 행사 등을 준비해 색다른 체험거리와 즐길거리를 운영된다. 주요 '상설체험마당'은 △전통 민

속놀이 △품물 체험 △운수대통 옷점 △옛 생활도구 체험 △추억의 놀이마당 등으로 구성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특히 새해 행운 기원 이벤트로 △행운과자 나눔 행사 △대형 달토끼 포토존 등이 제공된다. 이어 '명절 행사'로는 특별전 《대한민국 안중근 씨다》와 연계해 '영화로 만나는 안중근 의사' 영화 3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관람객들의 희망을 전하는 시간으로 △한지 풍경 만들기 공예 체험 △서예가들이 직접 새해 소망을 담아 입춘첩, 가훈, 좌우명 등을 써주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초등수업 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 4~5일 개최 지역별 7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5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자유관에서 '초등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 실용 연수'를 진행한다. 수업 컨설팅은 수업 중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수업 전문가(컨설턴트)와 교사가 함께 해결해 가는 수평적 문

제 해결과정으로, 교사의 수업 능력·설계·평가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컨설턴트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초등 수석교사 지원단·수업혁신 도지원단·교육지원청 수업컨설팅 지원단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적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4일에는 이마자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수업일관성 분석을 통한 수업

개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 방법, 매체 활용, 평가 간의 일관성을 분석하는 컨설팅 방법을 안내하고, 수업 영상 시청과 교수학습설계안 분석 등의 실습을 병행한다. 이어 5일에는 고은현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학습동기 전략 분석을 통한 수업개선'을 주제로 강의를 나선다. 고 교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기유발 전략을 살펴본 뒤, 교실 속 문제 상황을 참여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실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수업혁신의 열쇠는 교원의 수업전문성에 있다"며 "공개 수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내실있는 수업 협의와 성찰이 이루어지는 수업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현대, '쿠광플레이 K리그 슈퍼컵' 시즌 첫 트로피 도전

## 20년 만에 돌아온 슈퍼컵 2004년 우승 재현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2026시즌 첫 공식 대회인 '쿠광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이하 슈퍼컵)'으로 새 시즌의 포문을 연다. 전북현대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이하 대전)을 상대로 슈퍼컵 우승에 도전한다. 전북현대에는 2026시즌의 출발점인 슈퍼컵에서 홈 팬들과 함께 '전주성'의 응원 에너지를 앞세워 시즌 첫 트로피를 노린다. 'K리그 슈퍼컵'은 직전 시즌 K리그 우승 팀과 코리아컵 우승 팀이 맞붙는 대회로 1999년 첫 대회 이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개최됐으며 20년 만에 '쿠광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으로 재개를 확정했다. 다만, 이번 대회는 전년도 K리그 우승 팀과 코리아컵 우승 모두 전북현대로 동일해 K리그 2위 팀 대전이 출전권을 획득하게 됐다. 슈퍼컵의 경기 방식은 90분 단판으로 진행되며, 정규시간 동안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우승 팀을 결정한다. 대회 운영의 특성으로는 'N석(북측)'은 홈 전용 응원석, 'S석(남측)'은 대전 응원석으로 운영되며 그 외 W석(서측), E석(동측)은 '중립 응원 구역' 성격으로 운영된다. 중립 구역 운영 정책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타 구단 유니폼 또는 MD(머천다이즈) 착용이 가능하다. 이번 슈퍼컵 경기 티켓은 현장 판매



없이 쿠광플레이 APP에서만 6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전북현대 공식 홈페이지 및 APP에서는 예매할 수 없다. 한편, 전북현대는 지난 2004년 전년도 코리아컵(당시 FA컵) 우승 자격으로 치른 슈퍼컵에서 성남FC(당시 성남일화)를 상대로 승리해 우승을 기록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교육청,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 13일까지 전 교육기관 점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도

전북교육청은 이달 13일까지 도내 전 지역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 학교 대상으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점검은 공직기강 확립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위 행위 △품위 훼손 행위 △보안관리 실태 △복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갑질 근절 교육 여부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올 6월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출마 예상자 등과 불필요하게 접촉하거나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SNS·선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전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설 명절 기간 공직기강 집중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분위기 일신을 위해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점검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Good Bye "미세먼지"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자가용 이용을 자제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전중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삼가 하기



나눔기를 이용하고, 나홀로 운행자제



실내 공기를 위해 정화 식물 키우기



요리시 직화구이 삼가 하기

## 익산시, 20일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26년 익산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창업)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익산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창업)사업'은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지원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5년 이내 초기 창업자다.

시는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예비창업팀 3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과 자금 지원,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해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과 익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ikse.or.kr)에서 확인하거나 정책개발담당관(063-859-4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제11기 군산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군산시(군산시장 강임준)가 4일 시청 상 황실에서 제11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제11기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마련됐다.

새롭게 구성된 제11기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 학계, 시설, 단체 관계자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7년 12월까지 2년 임기 동안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 자문, 사회보장 증진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위원님들과의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군산시의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연계망을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정읍시는 지난 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는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르신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가 초빙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대처 방안을 공유하며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앞으로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촘촘한 노인 보호 체계 구축과 인권 존중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은 선택이 아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어르신들이 학대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읍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저소득층·청년 등 주거비 부담 최소화 안정적 정착 도모

정읍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5억 7,000만 원(도비 2억 2,800만원, 시비 3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급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시민이다.

신규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계층 지원에는 1억 2,000만원이 배정됐다.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LH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무이자로 용자에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에는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

입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별 한도는 △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4,000만원이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정읍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그동안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설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나선다

## 장보기·식당 이용 캠페인 전개로 전통시장 활기 ↑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둔 4일 군산 신영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열린 군산 신영시장은 수산물 특화 시장으로, 박대 등 품질 좋은 수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국 전

통시장을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최중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제품과 명절 물품을 구매했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구매한 물품은 군산 경로식당으로 전달,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의미가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오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소비 위축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과 관계 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식당 이용 캠페인'을 오는 13일까지 추진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활력

## 유희 공간 혁신적 재탄생 지역·예술 잇는 허브 구축

익산시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문화예술의 거리'를 새롭게 정의할 거점 공간을 선보이며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일 중앙동 일대의 유희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과 여행자가 예술을 매개로 교류하는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를 정식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한 여행자 라운지는 기

존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되던 빈 공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넘어, 지역 예술인에게는 창작과 전시의 기회를, 여행자에게는 익산의 문화적 깊이를 전달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관과 동시에 진행되는 기획 전시 또한 기대를 모은다. 제21회부터 제26회까지의 '익산 한국공예대전' 수상작 20점이 전시돼, 공예 특유의 섬세한 미학을 일상 속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운영되며,

수준 높은 예술 콘텐츠를 통해 라운지의 초기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전략이다.

시는 여행자 라운지를 중심으로 중앙동 일대의 문화 자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문화 거점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라운지를 거점으로 △보글하우스 △익산근대역사관 △소리문화공고 등 밀집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외지 여행자들이 익산의 원도심을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 동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주요 공공시설 5곳 밀착 점검

## 공공산후조리원·농산물 도매시장 등 현황 점검

정읍시가 지난 3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시설 5곳을 잇달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관 전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시설 운영에 앞서 안전 관리와 준비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농산물도매시장 △익스트림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전북대학 교점대학캠퍼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건축 부지 외에 인근 유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모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원화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설 개선 공정 전반을 점검하며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트림 놀이시설과 동화마을 테마공간에서는 안전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시장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도로와 인접한 구간에 안전시설물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에서는 관람객의 이동 동선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했다. 특히 실내 공간별 안내 표지를 정비하고 유리벽 등 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 개관 후 시민 불

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첨단과학캠퍼스에서는 방음벽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시설일수록 행정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며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즉시 보완하고 이를 정책과 실행으로 연결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다문화가족에 고향 나들이 선물

9일~3월 6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을 지원해 그리운 가족들과의 재회를 돕는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가 주관하고 익산시가족센터가 위탁 운영하며, 고향 방문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관계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9

일부터 3월 6일까지 모현동에 있는 익산시가족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심사를 거쳐 16가정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에는 왕복 항공권과 공항 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각 가정은 4~11월 중 희망 일정에 맞춰 5일부터 최대 30일까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정읍시가 활용 가치가 낮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자투리 토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희 건물 정리하는 데 있다. 시는 올해 동안 총 100건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해 10억원 이상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매각 대상은 일반재산 중 대부분 계약이나 유류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행정재산 중에서도 면적이 10㎡에서 660㎡ 미만인 소규모 사업 잔

여지 중 행정 목적이 상실된 토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중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 신산태인 포도체험센터 △구)감곡종합복지회관 △동심원 등 3개 등이 매각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매각 추진을 통해 관리 효율이 낮은 소규모 토지를 우선 정리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시유지와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군산시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제조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아파트·빌라·원룸 등 주거시설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 부담 완화 △기업의 인력난 해소 △장기근속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예산을 1천만 원 증액한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5일 더 늘어난 105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대상은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중소 제조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실까

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될 경우, 임차료의 80% 이내,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숙사 이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년 미만 내·외국인 근로자이며,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산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로 가능하며, 접수된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는 모집 규모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근로자 주거 안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의식 높인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4일 익산역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을 비롯해 승강기안전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익산시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총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활동은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불길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며, 인파가 몰리면 대피가 지연

될 수 있다. 대피가 지연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시는 익산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이와 함께 비상구 상시 개방 여부와 유도등 상태 등 주요 피난시설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양경진 기획안전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익산역에서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생명줄은 비상구"라며 "시설 관계자들은 유도등 관리와 통로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제시, 전북 최초 '지구지정형' 선정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최종 선정 농업 혁신 기반 마련

김제시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 평가에서 전북 최초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기존 스마트팜 단지 또는 조성 중인 지역을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인허가 의제 적용을 통한 관련 시설 절차 간소화와 공유재산법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김제시 사업 대상지인 새만금 농생명 단지 6공구 일원은 국가 정책 기조의 정착성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적합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거점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단계별 스마트 농업 확산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기반의 첫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7.5ha), △농업 스타트업 단지(3.2ha)를 조성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원예단지(10ha),

△세대통합형 스마트 농업단지(10ha) 등 총 30.7ha 규모의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전문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새만금 지역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사탕을 키우고 산업을 혁신하는 김제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농업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 부시장은 "앞으로, 김제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시작

### 19일까지 신청

김제시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대규모 행사 위주의 축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축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콘텐츠와 주민 참여도가 높은 축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화합, 전통계승,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공모를 통해 3개소 작은 축제를 선정하고, 축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홍보축제실(063-540-317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발굴된 작은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사후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각 지역의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축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재)고창식물산업, 복분자추출물 기반 '여성질환개선' 특허출원

(재)고창식물산업연구원원이 고창군 특화자원인 복분자 추출물을 활용해 여성들의 흔한 고민인 여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을 개선하는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창군 의뢰로 진행된 '고창 복분자의 여성 건강 기능성 규명 연구 용역'의 결실이다. '복분자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여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의 예방·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은 여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이 호르몬과 대사 문제를 함께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특화 자원의 기능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내용에 따르면, 여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 증상이 있는 실험동물에게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배란을 방해하던 호르몬(LH/FSH 비율)이 정상화되고, 과도하게 높았던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박생기 연구원장은 "이번 특허는 고창 복분자의 활용 범위를 여성 건강 분야로 넓힌 중요한 성과다"며 "앞으로 추가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동계 전지훈련 성지' 자리매김

## 전국 학생 선수단 유치 음식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고창군이 겨울시즌 전국 각지의 유소년과 학생 선수단을 유치하며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이 겨울시즌 전국 각지의 유소년과 학생 선수단을 유치하며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동계 전지훈련 시즌(12~2월 말) 전주 기전중·고등학교 농구부를 비롯해 전국 씨름 초등부 선수단, 남양주시 한강리틀야구단,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선수단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이 지역에 체류하며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전지훈련 참가 인원은 450여 명에 달한다.

참가 선수단은 대부분 합숙 형태로 일정 기간 머물며 집중 훈련을 소화했다. 이로 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이 늘어나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2~16일(5일간) 진행된 전국 씨름 초등부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 20개 팀이 참여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 선수단은 전용 씨름장과 체력단련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기초 체력과 실전 기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전지훈련 팀으로 호주와 중국 선수단 24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에 외국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체육 인프라의 우수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메달 따는 전지훈련 성지 고창군'의 매력은 종합 체육 인프라에서 비롯된다. 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 3면과 야구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이 마련돼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민 양대체전 개최를 앞두고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동시에 전지훈련 여건도 한층 개선했다.

경기장과 훈련시설, 부대시설을 정비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선제적 시설 개선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 선수단 방문을 통해 고창군이 국제 전지훈련지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높여 선수단이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진서면 주민 희망소통대화 성료

부안군 진서면은 4일 권이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150여명의 민민이 참석한 가운데 변산중학교 시청각실에서 2026년 결실창대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탁식, 민정 주요업무보고, 군정비전공유, 희망소통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기탁식에서는 이장협의회(회장 김을신)에서 100만원, 영농조합법인 지산지공(대표 장정중)에서 부안군 근농인 재육성재단 장학금 조성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고,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김천기, 부녀회장 김숙자), 파

랑새주간보호센터(대표 최선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각 100만원을 기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26년 진서면 주요 업무에 대한 김연태 진서면장의 민정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이후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의 군정 성과보고를 들은 후 권이현 부안군수의 부안군 3대 비전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민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진행해 진서면민의 자긍심과 공감을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보건소 '골밀도 검사' 연중 운영

고창군보건소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를 연중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골밀도 검사는 보건소 영상의학실에서 진행되며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골다공증 의심자 및 진단자 중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19세 이상 대상자는 8,000원의 검사비를 수납하면 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내방 후 의사 상담을 통해 검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보건상담이 가능하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리방법까지 알려준다.

골다공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골질이 되기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골밀도 검사를 통한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골밀도는 노년 건강의 척도이며,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골밀도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골밀도검사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통합 고용플랫폼' 가동

## 농가 일자리 지원·고용 미스매치 해소 기대

부안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 조성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도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계하는 고용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도비 2억5천만 원에 군비 2억5천만 원을 더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상용 일자리와 농가 일자리를 아우르는 단기 일자리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인

력중개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인력과 도시 유류 인력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국인을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는 중식비와 간식비, 도·농축산수당을 지원하고, 농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농작업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본격 추진

## 기업 최대 70만원 근로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 2일 ㈜한영산업 등 7개 참여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40~69세 미취업 신중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중년 고용 촉진 사업으로,

지난 2025년에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1명의 신중년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중년층 재취업에 기여했다.

올해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 중인 김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한영산업 등 7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신중년 1인 채용 시 월 70만원 씩 최대 1년간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 9명에게는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년 근무 시 50만원, 2년 장기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층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중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업무 협약 체결

김제시는 4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제시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으로, 예비귀농귀촌인부터 초기 정착 단계의 귀농귀촌인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

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귀농귀촌인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귀농귀촌인이 김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상하면, 산불감시원·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

고창군 상하면이 지난 3일 상하면주민행복센터에서 상하면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을 열었다.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원들은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불취약지역 순찰 강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제도 △산불 발생 시 조동 대응 및 주민 대피 지원 등 산불 예방과 대응 전반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광원 상하면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면은 산불 예방 홍보와 현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불 없는 안전한 상하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유희태 군수 “통합, 공감대·정당성 우선”

### 완주군수, 기자회견서 공식 입장 “정치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안호영 의원 찬성 표명엔 “유감”

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은 주민, 군의회, 행정의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사회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논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주민의 뜻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통합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군민의 약 65%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과 군의회,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입장이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통합 논의가 지역사회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누적시키고 있다”며 “특히 완주군의회는 통합 추진에 대해 의원 전원이 ‘통합 시 전원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사발 등 강경한 방식으로 반대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표와 주장만 앞서게 되면 지역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군수는 “공론화 절차가 중요하다”며 “완주군은 군의회의 고유 권한과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의회와 행정

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로 긴밀히 협력하며 통합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모적 대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군의회의장 등과 논의하고 관계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완주군도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판단해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고, 지역이 본연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홍보 콘텐츠 ‘국민 공모전’

### 무빙포스터·영상 등 4개 부문 모집 20팀 선정 공식 홍보·마케팅 활용

남원시가 오는 4월 개최되는 제96회 춘향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제96회 춘향제 홍보 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남원춘향제전위원회장이 수여된다.

올해로 96회를 맞는 춘향제는 ‘춘향의 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및 요천면 일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무빙포스터 △포스터 △홍보영상 △기타 등 총 4개 부문으로

로, 참가자는 희망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형식이나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춘향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와 아이디어라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에 삽입된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당선작은 향후 춘향제 공식 홍보물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7인이 참여해 △실용성 및 활용 가능성 △독창성 및 창의성 △기획력 및 완성도 △주제 적합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총 20팀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은 대상 1팀에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 상금 150만 원, 우수상 3팀에 각 상금 100만 원과 춘향제전위원



상장이 수여된다.

최종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1일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설 연휴 종합대책...14~18일 상황실 운영

### 교통·안전·의료 등 7개 분야 집중 병의원·약국 54개소 당번 지정

순창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교통소통 및 안전, 생활민원 처리, 재난 대응, 의료 지원, 물가 관리, 환경 정비, 공직자간 협력 등 7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군정 내에는 종합상황실이 운영되며, 행정과를 중심으로 쓰

레기, 상하수도, 교통·물가, 의료, 재난 등 6개 분야별 대책반이 편성된다.

군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농)폐기물 처리, 하수도 응급 복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 활동도 병행하여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병의원과 약국 54개소가 당번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지정되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기관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전 통시장과 성수품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군은 공직자간 확립을 위해 공직자간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근무자의 복무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맞춤형 디자인 지원...판로·매출 키운다

### 중기·소상공인·사회적경제 대상 4·27일 접수과제당 500만원 지원

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를 통해 디자인 개발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시

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기간은 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총 8개사다. 선정 기업에는 과제당 최대 500만 원(보조 90%, 자부담 10%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범위에서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브랜드 디자인(BI·CI, 로고 등) △상품 포장 디자인(패키지, 라벨 등) △홍보·마케팅용 편집 디자인(카탈로그, 리플릿 등)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물 디자인(상세페이지, 배너, SNS 콘텐츠 등) △기타 시각 디자인 개발 등이다. /완주=김명곤기자

군은 선정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도록 하고, 도내 디자인 전문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관내 공급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디자인산업 기반과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인쇄나 광고 집행비 등 디자인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완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방문객 2,400만 돌파...1년새 100만 ↑

### 대둔산·모악산 등 인기 상권권 SNS '완주' 검색량 42.3% 급증

완주군 방문객이 2025년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섰다.

4일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해 2,401만 명이 완주군을 찾았으며, 2024년 대비 약 100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는 통행사, 카드사, 내비게이션 기반의 데이터를 토대로 방문객을 분석한다. 특히, 방문객 통계는 상주인구, 지역을 통과하는 인구, 방문 횟수가 많은 방문자 등 일상 생활권 인구를 제외하고 관광 등의 목적으로 머무른 사람을 집계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이번 통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인 대둔산, 모악산, 송광사·오성마을, 고산자연휴양림, 아쿠아티파크아마존, 대아수목원 순이었다.

특히 SNS 상 ‘완주’ 검색량은 전년 대비 42.3%의 큰 증가율을 보이며 완주관광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

향후 완주군은 수도권 및 타 시도 단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테이밍 관광열차 운영 △힐링시티투어 버스 운영 △미식관광 △유관기관 캠퍼 등 완주 방문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전환 등 관광·체육 등 분야별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청아원 문예회관 특성화 공모 선정

### 현대 창작 창극 ‘만복사’ 선정 국비 1억 확보 11월 2회 공연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남원시 청아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17개 문예회관, 121개 프로그램이 신청한 가운데, 총 95개 문예회관이 선정된 경쟁력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남원시 청아원은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창작작 역량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창작 창극 ‘만복사, 첫눈에 남은 이야기’로, 남원의 고전 문학 자산인 만복사저포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번 작품은 ‘안숙선명창의 여정’ 김미나 관장과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이 공연 전반의 기획·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창작 프로그램으로, 기획 전문성과 콘텐츠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남원시는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2천 7백50만 원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남원시 청아원은 선정 문예회관 대상 워크숍에 참여한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및 교부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부터 자체 프로젝션을 구성하고, 2026년 11월 중 총 2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발효관광재단, 전주대 RISE 사업단 감사패 수상

###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경제 활력 축제 운영·대학 인재 양성 협력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발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지난 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성과공유·미래협력포럼’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순창 발효문화’를 접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지역사회 활력 제고와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순창 쟁치 알뜰당콩축제’ △‘순창 동계 밤 올림픽’ 등은 순창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3일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성과공유·미래협력포럼’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민 참여와 전주대학교 자원봉사자 등 서포터즈로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 점도 주목받았다.

프로그램은 축제 운영과 인력 양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모델로 평가되며, 대학생들이 농촌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생활 인구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지역 곤충사육농가소득 새 활로 모색

### 곤충사육 농가간담회 개최 기술·가공유통 지원 확대 논의

남원시는 지역 곤충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곤충사육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시 관계자를 비롯해 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 김경현 의원, 관내 곤충사육 농가 등 16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곤충사육 농가들은 △곤충사육 안정화를 위한 표준화 기술 지원 확대 △곤충 가공·유통 판로 강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농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보 강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농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시는 이날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곤충산업 육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 곤충을 활용한 메디푸드, 케어푸드, 소재 원료 등 활용 분야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원시의회 의원들 또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취약층 집 수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수

남원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을 최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총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4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약 400만 원 이내에서 출입문 확장, 욕실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해 거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총 1억 6,100만 원을 투입해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설비 설치 등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을 실시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두 사업은 모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23가구,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3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라오스서 현지 면접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 선발

순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해 현지 면접을 진행하고 근로자 4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현지 선발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라오스 셋사이퐁군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선발 과정에는 순창군과 순창농업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현장 적합성과 신뢰성 있는 근로자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군은 면접에서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 체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 적응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을 마쳤으며, 최종 선정된 40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3월 16일과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 이들은 순창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인력 지원에 투입되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부터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농업 기초 기술, 안전 교육까지 포함한 사전 준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을 도입해 1,665가구에 총 5,617회 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현지 직접 선발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완주군이 지난 3일,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2026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올해 추진하는 자금·창업·기술·인력·고용·수출·판로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2026년 중소기업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이 사업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임실군, 202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은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빈집정비, 지방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별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위험요인 및 정비효과 △건축물 소유자 동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종합민원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 최북미술관, '품의 온도, 서로의 집'展

무주 최북미술관(공립 1층 미술관)이 야심 차게 준비한 올해 첫 전시, '품의 온도, 서로의 집'展이 관람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오는 3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중첩되어 드러나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감상할 기회로, 박지은, 이일순, 이홍규 세 작가가 옷칠화와 서양화, 한국화로 각기 다른 '집'을 선보인다.

총 36점이 전시될 예정으로 박지은 작가는 옷칠화로 '땡에-nest' 시리즈 12점을 선보인다. '함께' 등 이일순 작가가 선보인 8점의 작품 속 '집'들은 초현실주의 화풍을 활용해 익숙한 일상의 사물이 낯설게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이홍규 작가는 시골집이 품고 있던, 아련하고 소중한 기억을 수묵담채화로 풀어냈다. '집으로 가는 길' 등 16점의 작품들은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와 낮은 담장이 있는 시골집 풍경을 고즈넉하게 담아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진안군, 설 맛이 농 특산물 파격 할인 실시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가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진안점, 전주호성점)'에서 시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 품목 20%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1인당 최대 90만 원 한도 내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명절 선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매장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은 명절 직전인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할인에 나선다. 명절 수요가 높은 계란, 당근, 대파, 방울토마토, 사과, 꽃감, 밤, 시금치 등 8개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할인을 진행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나서

### 농촌체험휴양마을 9곳 선정 사무장 활동비 80% 지원 농촌 활성화 인구 유입 기대

무주군이 '202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에게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위해 무주군은 지난 1월에 지역 내 19개 농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정된 9개 마을의 사무장 활동비를 보조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조 비율은 8개 마을이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이며, 1개 마을은 군비 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은 마을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기반으로 체험행사 기획은 물론, 마을 홍보를 전담하고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에서 사무장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에 든든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9개 마을에서 총 7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8억 4천5백여만 원을 벌어들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들이 역량 있는 사무장을 중심으로 무주만의 특색 있는 농촌 관광 콘텐츠를 발굴·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내실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

### 마령면 평지리 일원에 조성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 목표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진안고원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생산·교육·정착이 연계된 스마트농업 기반을 지역 단위로 집적 조성하는 국가 핵심 농정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유입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사업을 신청한 이후, 올해 1월 대면 발표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마령면 평지리 일원에 조성되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은 기반 조성 → 에너지 시설 구축 → 스마트팜 하우스 시설 구축 → 지원센터 건립 순으로 진행되는 데



임대형 스마트팜 조감도

앞서 진안군은 그동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저탄소에너지 공영용 시설 구축 사업에 잇따라 공모 선정되며 스마트농업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은 이들 선행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약 4.2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하우스 건축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제24기 농업인대학 입학생 모집

### 사과두릅기초영농치유농업 4개 과정 총 120명 모집

장수군은 중장기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24기 농업인대학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과(30명), 두릅(30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30명),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30명) 등 4개 과정 총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2~3회의 이론교육과 현장 견학

및 실습을 병행해 11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품목별 재배기술 전반을 비롯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설계 및 작목 선정, 생애정원 조성 및 운영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고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한다.

특히 올해 처음 편성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과정은 귀농인의 작목 선정부터 농지법 이해, 미생물 농업 활용 등 영농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포함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농업인대학은 농업 관련 전문 분야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체 교육 시간 중 70% 이상 출석자에게 수료 자격이 주어진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이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햇빛소득TF팀 전담조직 풀가동

### 전과정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임실군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 가운데 수요조사와 선제적 대응에 본격 나섰다.

군은 전담조직인 '햇빛소득 TF팀'을 신설해 사업후보지 발굴부터 주민참여 구조 설계, 협동조합법인설립, 인허가 검토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미 지난 1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8개 읍면 30개 마을이 신청하는 등 군민들의 관심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마을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이해도도를 높이고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TF팀은 기존 농업부서가 아닌 전기사업 인허가 및 협동조합 설립 업무경험이 있는 부서 중심으로 편성, 발전사업 허가, 법인 설립, 사업구조 설계 등 초기진입 장벽을 행정적으로 선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공모참여 수준을 넘어, 사업 실행가능성과 주민 체감 수익 모델까지 사전 설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는 행정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직이다.

무엇보다 주민주도형 에너지사업의 진입장벽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다.

군은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창출과 농촌 분산형 에너지 모델 확산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실행 중심의 지방정부 준비모델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기반 소득창출과 기본소득형 수익 배분구조, RE100 확산 대응, 지역 에너지 순환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 참여구조, △마을단위 수익공유 체계, △농촌소멸대응형 소득기반 구축, △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연계효과, △장기운영가능성 등을 핵심준비요소로 설정하고 마을설명회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주민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농촌소득 모델이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전략"이라며, "임실군은 공모 대응을 넘어 실제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용담호사진문화관 재개관

### 수몰의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예술공간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의 애환과 역사를 담은 용담호사진문화관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4일 재개관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에 위치한 용담호사진문화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기록해 온 공간으로 일상, 공동체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며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역할을 해왔다.

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람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2억 원(기금 7억 6,200만 원, 군비 4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년 간 전면적인 개·보수를 추진했다.

재개관과 함께 선보이는 기념 특별전 '기억 속의 기록'은 '몰속의 마을', '기억을 기록으로', '새로운 기록'을 주제로 잡아,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6개 면 68개 마을의 풍경과 삶의 흔적을 담은 총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수몰 이전 마을의 모습과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한 사진과 자료를 보존·전시하며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역할을 해왔다.

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람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9일부터 접수 시작

### 지역 미래인재 양성 박차

임실군의 대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임실군애향장학회가 2026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120명으로,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대학생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생 신청 접수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마감 후 1차 서

류심사를 거쳐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를 통해 학업 성적과 가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차 심사가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 결과는 3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임실군청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 가능하다. 지원서는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1층 상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의회,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임실군의회가 지난날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주문했다.

김종규 의원은 "35사단 입구 대곡마을 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행정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규 의원은 "읍면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예산이 삭감되어 어두운 골목길과 농로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태양열보다는 지열 난방 등 실제 농가 선호도가 높고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희 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청년 정책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군민의 독자적인 청년 지원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재 의원은 "임실사랑상품권을 전면 모바일화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혜택을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지류 상품권 발행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등 유연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왕중 의원은 "홍고추 출하 장려금을 kg당 30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꺾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윤 의원은 "다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우대나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공식 사회부터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실군의회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봄철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 운영

###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안전 강화

장수군은 봄철 산불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인 산림과를 중심으로 소방, 경찰, 산림항공관리소, 무주국유림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대처에 나선 예정이다.

이에 군청 산불종합상황실과 읍·면 에 총 8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재난대응단·산불감시원 운영, 산불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장수군은 산불 감시와 예방·진화를 위해 선발한 산불감시원 44명과 산림재난대응단 35명을 총동원해 주민밀집장소 방문 계도, 홍보물 배부,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 등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순찰을 실시해 사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추진해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 오수면 길손식당,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임실군 오수면 길손식당(대표 천경순)은 지난 29일, 설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오수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은 지역 내에서 오랜기간 사랑받아 온 길손식당이 지역 주민들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길손식당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로 참여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천경순 대표는 "지역 주민들 덕분에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만큼,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식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미 오수면장은 "축소된 기부문화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주신 길손식당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오수면 복지사업에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삼선회, 무주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단체 '삼선회'가 4일(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최은아 회장은 "오늘 전달하는 장학금이 무주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길에서 당당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무주의 밝은 미래와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선회'는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23년부터는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 페이퍼코리아, 설 명절 맞이 백미 10kg 308포 기부

### 2014년부터 꾸준한 나눔

페이퍼코리아(주)(대표이사 문성운)가 4일, 2026년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백미 10kg 308포(1,000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지역 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배분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문성운 대표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희망과 도약의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

고자 했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온정을 느끼며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페이퍼코리아(주)에 깊이 감사드리다"라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소중한 나눔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만큼, 전해 주신 백미는 꼭 필요한 세대에 정성을 다해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반석건설, 고창 상하면에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부

고창군 상하면 (유)반석건설(대표 윤성중)이 지난 3일 상하면주민행복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월에 출범한 제6기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봉식)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상하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성중 (유)반석건설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6기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번 기부가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진안 상전면지사협, 입춘 맞아 어르신 국수 나눔 행사

### 어르신들 건강·장수 기원

진안군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석)는 4일, 상전면 365화합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사에서는 협의체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국수와 탕수육을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대

접하며 따뜻한 식사를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오랜만에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화합센터에는 웃음과 온기가 가득했다.

박종석 위원장은 "입춘을 맞아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오늘 나눈 국수 한 그릇이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 곁을 지키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석)는 4일 상전면365화합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 남원 죽향동발전협의회 마트24 쌍교점 청년회 이웃돕기 나눔 실천

남원시 죽향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죽향동 발전협의회와 청년회, 마트24 쌍교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 50상자와 라면 50상자를 기탁하며 이웃돕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1일 1기구 소통행진'을 통해 홀로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단체들은 평소에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정희 죽향동발전협의회 회장은 "명절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재왕 죽향동청년회 회장은 "이번 나눔이 명절의 온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용일 마트24 쌍교점 대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상생을 위한 나눔에 계속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정읍라이온스클럽 등 설 앞두고 나눔 행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정읍라이온스클럽과 정읍시과는 관내 10개 법인 어린이집(동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김성일 회장은 "이번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는 관내 10개 법인 어린이집(동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류재근 분과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월드쉐어 대전지부, 완주군에 참치세트 후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 대전지부가 지난 3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500만 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 150개를 전달했다.

월드쉐어는 전 세계 아동과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 자립을 지원하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로, 국내외 긴급구호, 아동결연,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웃돕기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박지영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월드쉐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의 도움을 받아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근 기자



〈一事一言〉



세상이 다 아는데 '증거 없음'... 김건희 봐주기 판결(1)

송요훈  
민들레 편집위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있었다.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집 앞을 지나는 행인을 잡아다 자기의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보다 키가 짧으면 키를 늘려서 죽이고, 키가 길면 긴 만큼 잘라서 죽였다. 수사를 그렇게 하면 진실이 규명되고 불의를 밝히는 게 아니라 생사함을 잡게 된다. 법을 그렇게 집행하면 살아남 사람이 없을 것이다.

TV로 중계되는 김건희 선고 재판을 보면서 반대되는 상황을 상상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판관이 있다. 그에게 각각의 죄에 해당하는 침대가 있고, 피고인이 오면 그 침대에 눕혀 키가 1mm 오차도 없이 침대에 맞으면 유죄가 입증된 거라며 감옥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로 판단하여 다 풀어줬다. 그렇게 판결을 하면 거리에는 범법자들이 활보하고 감옥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범죄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한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격언도 있다. 둘 다 같은 의미일 것이다. 멋진 말이다.

그런데 그 원칙과 격언이 멋진 말이 되려면, 그 피고인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 그게 아닌데 그 원칙과 그 격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법원의 그물은 성기어 법을 잘 알고 머리만 잘 굴리면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범법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 탈법과 편법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지조작이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 주가지조작으로 막대한 돈을 번 것도 사실이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 통정매매의 정황까지 있으니 김건희도 주가지조작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주가지조작 일당과 같이 주가지조작을 모의하고 실행한 공범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란 다. 방조죄로 기소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지만, 방조죄로는 기소하지 않았으니 방조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다.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 보고서 받았다.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선에 뛰어든 윤석열에게 유리한 조사였다. 때로는 여론조사 보고서도 재촉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된 김건희는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극진하게 대하며 선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명태균이 선봉로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준 건 아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공천을 부탁했고, 김건희는 명태균에게서 돈을 받았다.

여론조사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없다. 바보도 그렇게는 안 한다. 한국 사회에선 '내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라는 건, 청탁이 통했다는 거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가장

힘이 세다는 말도 있다.

김영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했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봐주라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반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것만으로도 선거 개입과 청탁의 죄는 성립한다. 미수에 그쳤어도 불법인 건 맞다.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조작일 개연성이 높다. 여론조사 조작은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되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선후보가 그걸 몰랐을 리 없다. 명태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에 어긋나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대선 후보가 거리낌 없이 그걸 받아보았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에게 내내 밀렸으나 당원 투표에서는 높게 나와 가까스로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대선에선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김건희는 '셀럽' 흉내를 내며 영부인으로 호사를 누렸고 여기저기서 명품백도 받고 다이아 목걸이도 받고 고급 시계도 받고 금겨북이도 받고 역대 그림도 받았다.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당선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계약하여 산출할 수 없으니 판결에 반영하면 아니 되는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다음 날 명태균과 통화했고,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을 약속했다. 김건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국민이 안다. 약간의 과장을 하자면, 누구네 집에 손갈이 몇 개인지 아는 정도로 훤히 안다. 그런데 주가지조작 혐의도 여론조사 관련 혐의도 무죄란다.

그 판결에 공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인터넷 세상에선 돌풍이 일어나고 재판의 권위, 법원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으로 복귀 요구를 했다는 게 생각난다. 수사가 아니라 태업을 했구나, 무죄 판결이 나오도록 수사를 했구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범죄가 100% 입증되지 않을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멋진 말이다. 왕과 귀족이 법 따위를 우습게 알던 시절에 힘없는 평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아닐까?〈계속〉

본 칼럼은 시민인문 민들레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외부링크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보편적 권리로 다가온 전북형 통합 돌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복지·돌봄·의료로 '선별적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는 통합 돌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신청 경쟁을 벌여야 겨우 달 수 있던 복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의미가 크다. 인구 고령화와 돌봄 공백,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정책은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확대'와 '연결'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14개 시군 전역에서 통합 돌봄이 가동되면, 노인·장애·질병과 사고로 일상이 흔들린 도민은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퇴원 후 돌봄 공백을 메우는 단기·집중 돌봄,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과 야간돌봄 확대는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구체화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운영이 관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11만 개 확대 역시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노인과 장애인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복지를 '일하는 복지'로 확장한다.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춘 기초생활보장 확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병원동행과 민원대행까지 아우르는 주민도움

센터는 위기 순간 즉각 작동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대 추진과 필수·응급의료 확충이 핵심 축이다. 교육·수련·정적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지 못한다면 지역 의료 격차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책임의료기관 협력 강화와 통합재활병원 건립, 소아·분만·응급 인프라 확충은 '아프면 지역 안에서 치료받는' 의료체계의 최소 조건이다.

전북형 통합돌봄의 전면 시행이 성공하려면 시군 간 재정·인력 격차를 최소화하고, 민간 복지·의료 자원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지역별로 다르고, 개인의 삶의 조건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기에 더해 정책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돌봄과 공공의료의 행정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 앞에서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북형 복지 국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전북의 복지는 어느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몰라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제도가 권리로 체감되려면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 전북형 통합돌봄과 의료의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일상에 뿌리내린 사회안전망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

기고

그래핀: 농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



그래핀은 탄소 속 원자 구조 결합된 단원자 층 물질로, 현대 과학 기술 분야

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소재다. 흑연의 다층 구조가 처음 관찰된 이후, 그래핀의 단일층 분리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0년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는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하고 그 물성을 규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래핀은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전자와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넘어 농업 및 식품 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그

래핀을 활용한 기능성 비료와 생육 촉진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연구 사례를 종합하면, 그래핀 및 그래핀 산화물은 기존 비료와 혼합할 경우 양분 이용 효율과 생산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발아율 향상, 뿌리 신장 촉진, 건물중 증가 등 작물의 전반적인 생육이 크게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그래핀의 독특한 물성에 기인한다.

그래핀은 약 97% 이상의 높은 광투과성을 지니며, 전기전도성은 기존 실리콘 소재보다 월등히 높다.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매우 넓어 양분을 흡착·보유한 뒤 식물 뿌리로 점진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래핀 혼합 완효성 비료는 질소 성분의 방출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양분의 율탈 현상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래핀 비료는 토양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핀 산화물은 토양 내 수분 유지력을 높이고, 뿌리 주변 미세 환경을 안정화함으로써 초기 생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특정 농도 이하에서는 유용 미생물 활성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선택적 반응이 관찰되기도 했다.

그래핀은 합성이 가능한 소재로 '잠재적 재생 가능 물질'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외 연구에서도 지적되듯이, 그래핀의 장기적인 토양 잔존성, 생태계 내 이동성,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고농도 적용 시 식물 생리와 미생물 군집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안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래핀 비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토양-식물-미생물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장기 실증 연구와 함께 경제적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생산 비용 절감과 적정 적용 농도 설정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구 사례가 보여주듯 그래핀은 농업 생산성과 환경 보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망한 소재로, 향후 고효율·저투입 농업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이인석

본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시

동백 / 강은교

만약  
내가 내게로 가서  
문 두드리면  
내 몸에 숨은  
봉우리 전부로  
흔느끼면  
또는 어느 날  
꿈 끝에  
내가 내게로 와서  
마른 이살을  
비추고  
활활 우리 피어오르면  
끝나기 전에  
아, 모두  
잡이기 전에

시인 약력 : 1945년 함남 홍원 출생.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김기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순례자의 잠'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1975년 제2회 '한국문학상', 1992년 제37회 '현대문학상', 2006년 제18회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빈자 일기' '백 속의 편지'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 '풀잎' '붉은 강' '허무 수침' 등 다수가 있다.

문화재 열전



장수향교 대성전 (보물 제272호)

- 분류 - 유적건조물, 교육기관, 향교
-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향교길 31-14 (장수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화/ 목요일 전북 가-00022 (만2)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시 010-9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군이 '일하고 싶은 농·어촌, 성장하는 농·어촌 경제'를 목표로 올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농어업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후변화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주>

유용미생물 바로배송 서비스



고창 명품수박 출시 기념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위문



죽도마을 마을 주치의사제



# 고창군, 2026년 농어업 제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올해 새롭게 도입·변경·확대되는 29개 농어업 주요 제도·정책 발표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청년 스마트팜·외국인 근로자 복지강화

#더 두둑고 촘촘하게...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원 확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와 장려금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제 단가를 인상하여 밭은 ha당 150만원, 과수는 16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매장려금 예산을 8억원(기존 5억6000만원)으로, 수매량은 500톤(기존 300톤)으로 확대하고 소포장제(2.5kg~5kg) 제작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도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가구에 한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청년 가구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금액은 오는 5월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의무사항으로 운영되던 '마을공동체 활동(마을활동)참여 의무'는 전면 폐지돼, 직불제 수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의 핵심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성송면)'가 본격 운영된다. 12개 팀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하며, 멜론, 수박, 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폭염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보호를 위해 '보강 지주대'와 '온도 저감 자재'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시행된다. 수정별 지원 품목을 수박, 멜론, 토마토,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 단호박, 복분자 등 8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사업량을 1만250군으로 사업량을 확대했다.

유용미생물 공급 체계도 확대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북부권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 구축한다. 이번 시설이 운영되면 유용미생물 주5일 상시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미생물 사용량이 많은 북부권 농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으로 토양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과 지역 경제 상생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시스템은 한층 더 고도화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인권·안전 모범농가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여 우수 농가에는 근로자 우선 배정 및 보조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창사랑 상품권'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돕는 동시에 약 5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낸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이 기존 51~70세(홀수년도) 360명에서 51~80세(짝수년도) 609명으로 확대된다. 검진 항목에는 농약 중독, 골절 위험도,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이 포함되어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섬 닻터'부터 '주꾸미 서식장'까지, 어업인 체감 복지 실현

'비대면 섬 닻터' 서비스는 2026년 고창군이 선보이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이다. 부안면 내죽도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원격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과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수산 자원 회복 사업과 폐어구 회수를 돕는 '어구 보증금제' 확대실시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축산 방역 강화 및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 축산 분야에서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액 지원 대상을 기존 50두 미만에서 100두 미만 소 사육 농가까지 대폭 확대했다.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양봉 농가 또한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편리하게 기자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산림 경영 효율화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산림 분야에서도 행정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산림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별채 연도'가 제외되고, 인가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관련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며 "군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 고창군을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업의 첫걸음, 고창형 스마트팜**  
 2024. 9. 26. (목) 13:30 성송면 판정리 190일원